농촌진흥청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 시점 2026. 11. 11.(수) 11:00 / 11. 12.(목) 조간 배포 2026. 11. 11.(수) 06:00

“베트남 딸기 수출길 더 넓어진다” 농약 안전사용지침 개발

- 농촌진흥청, ‘베트남 수출용 딸기 농약 안전사용 지침’ 개발, 보급
- 사용 가능 농약 종류, 잔류허용기준, 안전사용 방법 등 확립
- 딸기 수출 농가와 수출 통합조직 등에 보급

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은 딸기 수출 농가가 베트남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농약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약 안전사용지침을 개발해 보급했다.

우리나라 딸기 수출은 지난해 4,864톤, 7,040만 달러(한화 약 1,003억 원)를 기록해 신선 농산물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.

베트남은 지난해 금액 기준 태국(27.4%), 싱가포르(27.1%), 홍콩(13.9%)에 이은 딸기 수출 4위(10.4%) 국가다. 그동안은 베트남 전용 농약 안전사용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수출 농가와 수출업체에서는 사용 가능한 농약 종류와 적정량 등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.

이에 농촌진흥청은 베트남 수출용 딸기 농약 안전사용지침을 개발하고 수출 현장에 보급했다. 지침에는 베트남 수출 딸기 재배 시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종류와 농약 잔류허용기준(MRL)*, 살포 시기와 횟수 등 정보가 실려 있다.

* 농약 잔류허용기준(Maximum Residue Limit, MRL): 사람이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상 해가 없도록 설정한 기준량

특히 주요 수출 3개국인 싱가포르, 태국, 홍콩에서는 잔류허용기준 규제로 사용할 수 없었던 ‘목화진딧물 방제 농약(비펜트린·플로니카미드 입상수화

제)’을 포함해 베트남 수출 농가의 약제 선택의 폭을 넓혔다.

농촌진흥청은 이 지침을 딸기 수출 농가와 수출 통합조직, 수출단지, 도 농업기술원, 시군 농업기술센터, 농림축산식품부, 농림축산검역본부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 등에 배부했다.

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 최달순 과장은 “이번 베트남 수출용 딸기 농약 안전사용지침 개발로 수출 농가와 관련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”이라며, “한국산 딸기 수출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 농가와 업체에서는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. 베트남 수출용 딸기 농약 안전사용지침 개발 보급

담당 부서	국립농업과학원 잔류화학평가과	책임자	과 장 최달순 (063-238-3221)
		담당자	연구사 이은영 (063-238-3226)

농촌진흥청에서 연구·개발한
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베트남 수출용 딸기 농약 안전사용지침 개발 보급**

□ 목 적

○ 베트남 수출용 딸기 재배 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안전사용지침을 개발하여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한국산 딸기의 베트남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확대 도모

□ 추진 경과

○ (필요성) 베트남 딸기 수출 확대에 따른 전용 농약안전사용지침 마련 요구 증대

- 베트남은 딸기 주요 수출국 4위지만 전용 농약안전사용지침이 없고, 특히 현재 겨울 딸기 재배시기와 연계하여 수출 농가의 농약사용 정보 문의 증가

○ (지침 개발) 베트남 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지침 개발

- 사용 가능 농약 종류, 잔류허용기준, 안전사용기준(살포시기 및 횟수) 등 정보 수록

○ (지침 배포) 현장 보급 및 관련 기관 배포

- 딸기 수출 농가, K-BERRY 등 수출 통합조직, 도 농업기술원, 시군 농업기술센터, 농림축산식품부, 검역본부, aT 등 배포(10.23)

□ 향후 계획

○ (모니터링) 베트남 잔류농약 허용기준 개정 동향 지속 모니터링

- 신규 등록 약제 및 국내외 기준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침 개정 및 재보급

○ (교육·홍보) 수출 농가 및 생산자 조직 대상 교육·홍보 강화

- 농약안전사용지침 준수 지도 및 현장 컨설팅 추진

□ 붙임: 농약안전사용 지침 표지

